

폭염에 화마까지...이상기후 덮친 유럽

영국·프랑스 사상 최고 기온 경신 그리스·이탈리아는 산불로 몸살 세계기상기구 "폭염 오늘 정점"

유럽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곳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 기상청은 중부 링컨셔주의 코닝스비 지역 기온이 이날 오후 3시 기준 40.3도를 찍으며 영국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런던 시내 세인트 제임스 파크, 히스로가 40.2도, 큐 가든이 40.1도로 여러 지역에서 40도가 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케임브리지의 38.7도였는데 이날 오전에 런던 남부 서리 지역에서 기온이 39.1도로 측정되며 기록이 깨졌다.

기상청은 최고 34개 관측지점에서 기존 기록이 경신했다고 말했다.

전날 밤도 영국 역사상 가장 더웠고 열대야까지 나타났다.

웨스트 요크셔의 한 지역은 전날 최저 기온이 25.9도였는데 기존 기록은 1990년 8월 3일 브라이트의 23.9도였다.

전날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대거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곳곳에서 철도가 취소 도로포장이 녹아 도로가 위로 솟았다. 영국 철도시설공단인 네트워크레일은 서포크 지역에 철도 온도가 62도까지 치솟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고압 전력선이 늘어내려오며 화재가 발생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잇따른 화재로 런던 소방 당국이 '중대사건'을 선언했다고 전하고 바비큐 등 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런던 외곽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며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재택근무가 증가했지만 냉방이 되는 사무실에 일부러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철도 이용이 약 40% 줄었다.

대법원이 냉방시설 문제로 심리를 온라인으로 변경했고 영국박물관은 오후 3시에 문을 닫았다.

기상청 스티븐 벨저 최고 과학 책임자는 "기상청 연구에서는 영국 기온이 40도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런 극단적 기온을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기후과학자 프리데릭 오토 교수는 BBC에 기후변화와 영향에 관해 경고하며 "수십 년 후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서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서쪽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40도가 넘는 곳이 속출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를 품고 있는 지롱드에서는 지난주 시작된 산불로 2만 헥타르(200km)에 달하는 숲이 불에 탔다.

기상청은 이날 프랑스 전역 64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고 밝혔다.

수도 파리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수은주가 40.1도를 가리켜 150년 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더운 날로 기록됐다.

파리 낮 기온은 2019년 7월 25일 42.6도로 가장 높았고, 1947년 7월 28일 40.4도를 기록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도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번져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리스 소방당국은 아테네에서 27km 떨어진 펜텔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고자 80여 명의 소방인력과 30여 대의 소방 항공기를 투입한 상태다.

그리스에서는 작년 여름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서울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12만1천 헥타르(1천210km)의 산림이 초토화된 바 있다.

역시 무더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 인근과 중부 토스카나, 북동부 트리에스테 등에서도 잇따라 크고 작은 산불이 보고돼 당국이 진화 작업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손 맞잡은 러·이란·튀르키예 정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와 에브라힘 라иси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차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배출 주요국, 기후대책 빈수레

상위 10개국, 감축목표 이행 미흡 한국도 '매우 불충분' 국가 포함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주요국이 걸로로는 기후위기 대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진(CAT)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은 지난해 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이행 정도가 5단계 중 4번째로 낮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한 국가로 분류됐다.

CAT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비교해 각국의 관련 정책 이행 정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38개국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권 이내로 꼽히는 한국도 '매우 불충분' 국가에 포함됐다.

국가별 세부 리포트에서 CAT는 "한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계획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파리협약상 국제사회 목표치인 '1.5도 이내로 제한'에 발맞추기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속도와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총 15개국이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됐다.

탄소 배출량 전 세계 2위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8개국은 3번째 단계인 '불충분'(insufficient),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은 관련 대책 추진이 '극심하게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한 나라로 CAT는 평가했다. 38개국 중 영국 등 나머지 9개국은 '거의 충분'(almost sufficient)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가스관 틀어쥔 푸틴 서방 제재 탓하며 또 '공급 축소' 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점검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적시에 재가동하겠다고면서도, 공급량 추가확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튀르키예(터키) 정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늘 책임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트해를 관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은 11일부터 열흘간 정기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일각서는 러시아가 자국을 향한 국제 제재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21일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노르트스트림-1 재가동을 거론한 데 앞서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도 가스프롬 내부 소식통을 인용, 21일 가스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런 우려는 일단 해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수리를 맡긴 파이프라인 가스터빈이 제때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급량이 축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폭우로 물에 잠긴 미 뉴욕 거리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워싱턴 하이츠 지구의 거리가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北 해커 랜섬웨어에 협박당한 美 병원

당국, 6억5천만원 회수해 돌려줘

북한 해커가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의 병원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뉴욕 포덤대학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회의에서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이 이 같은 사실을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모나코 차관에 따르면 캔자스주(州)의 한 병원은 지난해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은 뒤 암호화폐로 해커가 요구한 액수를 지불했다.

병원 입장에서 해커가 요구하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모나코 차관의 설명이다.

또한 북한 해커들은 48시간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요구 액수가 두 배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병원은 해커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도구로 사용해 병원이 지불한 돈이 중국에 위치한 돈세탁업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이 업체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 캔자스 병원 외에도 콜로라도주의 병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금품을 낸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은 금품을 회수해 피해 의료기관에 돌려줬다. 모나코 차관은 회수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전체 회수액이 50만 달러(약 6억5000만 원)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공장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를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합병 및 합병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의 제출공고

청봉산업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에스에이자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2022년 7월 20일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각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 회사는 해산하기로 한 합병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이와같은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갑" 과 "을"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 과 "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구주주분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갑" 청봉산업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62번길 24-3층(중흥동)
대표이사 안 태 열

"을" 에스에이자산업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동공단지22길 24
사내이사 김 집 회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21(2021고합150, 2021고합167, 2021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동) 등

피고인 : 허덕영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동 등)등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7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혜선

산행안내

7월23일(토)

▲광주호신회 7월23일(토) 죽도 보물섬 상화원,해저터널,꽃지해수욕장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광주신안회 7월23일(토) 저녁출발 무박 강원인제방태산&아침가리계곡&곰배령곰배울 *저녁:영주체육관11:00.동아병원 11:05.롯데백점11:10.광주역11:15.문예후문 11:25.비엔주차점11:30 *다음카페 광주신안회 ☎010 7794 6920

이발사 구함

010-8610-0211

| 근무지 |
미국 LA

| 월급여 |
7백만원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동희(880623-XXXXXX)
- 최후주사 : 광양시 광장로 70, 207동 1102호 (중동, 성호2차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북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118

피상속인 망 김동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춘천지원 2022나단10279호로 신청하여 2022년 7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21일

- 상속인 : 김순자(491206-XXXXXX)
정읍시 이평면 생배미길 5(마항리)
- 신고기간 : 2022. 7. 21. ~ 2022. 9. 3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순자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구독문의

신문 2200-0055510